사상체질의학회지
J. of Sasang Const. Med.
Vol. 12. No. 2. 2000

『東醫四象新編』의 著者인 元持常에 대한 硏究

윤보현* · 박성식*

Abstract

The Research of the 『Won Ji-Sang』, The Author of the 『Dong Eui Sa Sang Sin Pyun』

Youn Bo-hyun · Park Seong-sik

Dep.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

1. Background and Purpose :

『Dong Eui Sa Sang Sin Pyun』is the one of widely used medical books in the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Academy, but there was not enough study of the author. Through the research of the 『Won Ji-Sang』, the Author, We highly intent to utilize the book 『Dong Eui Sa Sang Sin Pyun』.

2. Methods :

We arranged Won Ji-Sang's life style with investigation of the Won Yong-Sa(Won Ji-Sang's daughter), Survivors's verbal evidence and related books.

3. Results and Conclusion :

1) Won Ji-Sang's Childhood Name was "Ill Sang", Pseudonym was "Duck Pil", Pen Name was "Sung Am". He was born in "Bong Yang Myune, Je Chon Gune, Chung Buk" at 1885's June 1st of the lunar calendar and moved to "Yeo Ju Gune, Kyung Gi Do" at 1910's, and passed away in "Nae Sa Ree, Whung Chun Myune, Yeo Ju Gune, Kyung Gi Do" at 1962's June 2'nd of the lunar calender, when he was 78s.

2) The outline of philosophy of Won Ji-Sang's was based of "Wha Seo Doctrinal Faction's ideology", which was connected with Kim Pyong-Muk, Yu Jung-Kyo, Lee Gun-Won, Rue Rin-Suk.

3) 『Dong Eui Sa Sang Sin Pyun』was published in 1929's when Won Ji-Sang was 45s. However, we couldn't find out how Won Ji-Sang got to know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and whether or not he had relation with Dong Mu Lee Je-Ma.

4) Won Ji-Sang's medical experience might be started before he was 45, and real medical treatment began when he was 66.

Key words : Dong Eui Sa Sang Sin Pyun, Won Ji-Sang,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Lee Je-Ma

*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교신저자 : 윤보현 주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1번지 광동한방병원 전화) 2222-4869 E-mail) goldenlake@hanmail.net

www.kci.go.kr

Ⅰ. 緖 論

『東醫四象新編』은 元持常이 『東醫壽世保元』의 病證과 處方을 黃道淵의 方藥合編과 유사한 양식으로 編輯하여 四象處方을 편리하게 응용할 수 있도록 만든 書籍이다. 이 書籍은 陽曆 1928年10月21日(戊辰 菊月秋 甲午) 張鳳永에 의해 序文이 쓰여지고, 陽曆 1928年11月12日(戊辰 十月 一日) 南大熙에 의하여 跋文이 쓰여졌으며, 그후 陽曆 1928年12月30日(昭和三年 十二月 三十日) 沈禹澤이 大東印刷株式會社에서 印刷한 후, 陽曆 1929年1月18日(昭和四年 一月 十八日) 文友社에서 發行하였는데[1], 이는 李濟馬 逝去後 29年만에 이루어진 結果였다.

지금까지 四象醫學界에서는 『東醫四象新編』에 기록된 處方의 應用에 대해서만 硏究가 이루어졌을 뿐 著者에 대해서는 막연히 함경도 출신일 거라는 잘못된 추측 외에는 알려진 바가 없었다. 이에 著者는 關聯資料 및 生存人物들의 證言을 토대로 元持常에 대하여 硏究한 結果를 報告하는 바이다.

Ⅱ. 硏究對象 및 方法

먼저, 『東醫四象新編』 序文에 記錄된 "日元成菴德必甫~"라는 文句 및 『東醫四象新編』 末尾의 出版記錄에 의거하여(參考 : 지금까지 市中에 流通된 書籍들의 出版記錄에는 著者가 李濟馬, 張鳳永 等으로 잘못 印刷된 경우가 많았다.) 『東醫四象新編』의 著者인 元持常의 原州元氏 族譜에서 일치하는 人物을 探索한 結果 字가 德必, 號가 成庵인 人物을 찾을 수 있었다.[2] 이로써 "日元成菴德必甫~"라는 文句는 "日前에 元成菴德必이라는 분이~"(甫는 男子의 美稱이다.[3])로 解釋하는 것이 妥當하고, 『東醫四象新編』의 著者가 元持常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후, 原州元氏 族譜에 記錄된 後孫 및 關聯 人物들을 수소문하던 중, 元持常의 친딸인 원용사 할머니가 元持常이 末年을 보낸 "경기도 여주군 흥천면 내사리"에 生存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關聯資料들의 收集 및 生存人物들의 證言을 토대로 元持常의 生涯 및 思想觀을 정리하였다.

Ⅲ. 元持常의 家系

1.元持常의 家系圖

原州元氏는 侍中公系, 原城伯系, 杧谷系로 分類되는데, 元持常은 侍中公系 元益謙의 25世孫이며 生六臣의 한 사람인 元昊의 直系後孫이다.[2]<표1>

生六臣이란 世祖가 端宗으로부터 王位를 奪取하자 世上에 뜻이 없어 벼슬을 버리고 절개를 지킨 여섯 사람으로 김시습(金時習)·원호(元昊)·이맹전(李孟專)·조려(趙旅)·성담수(成聃壽)·남효온(南孝溫)을 指稱한다.

元昊는 字가 子虛, 號는 觀瀾이다. 太祖5年(1396年) 丙子 四月 九日 出生하여, 世宗 5年(1423年)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한 후 여러 청환직(淸宦職)을 지내고 문종 때 집현전 직제학(集賢殿 直提學)이 되었다. 端宗 初에 首陽大君(世祖)이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하자 고향인 원주에 내려가 은거하다가 世祖 3年(1457年) 端宗이 죽자 寧越에서 三年喪을 치렀다. 그 뒤 호조참의에 임명되었으나 이에 불응하였으며, 世祖 9年(1463年) 壬午 十月 三日에 餘生을 마쳤다.[2] 이분의 遺稿와 事蹟을 기리기 위해 後孫들이 觀瀾遺稿라는 冊을 發行하였는데, 순조13年(1813年)에 元錫祚 등이 1次 編輯·刊行하였으며, 昭和二年(1927年)에 元持常이 編輯 兼 發行하여 增補 重刊하였다. 增補 重刊書의 책머리에는 韓致應의 遺稿序 및 元世寶의 遺稿 重刊序가 있고, 책끝에 元錫祚의 지(識)와 元世臣(元持常의 父)의 跋文이 있다.[4]

2. 元持常의 家族關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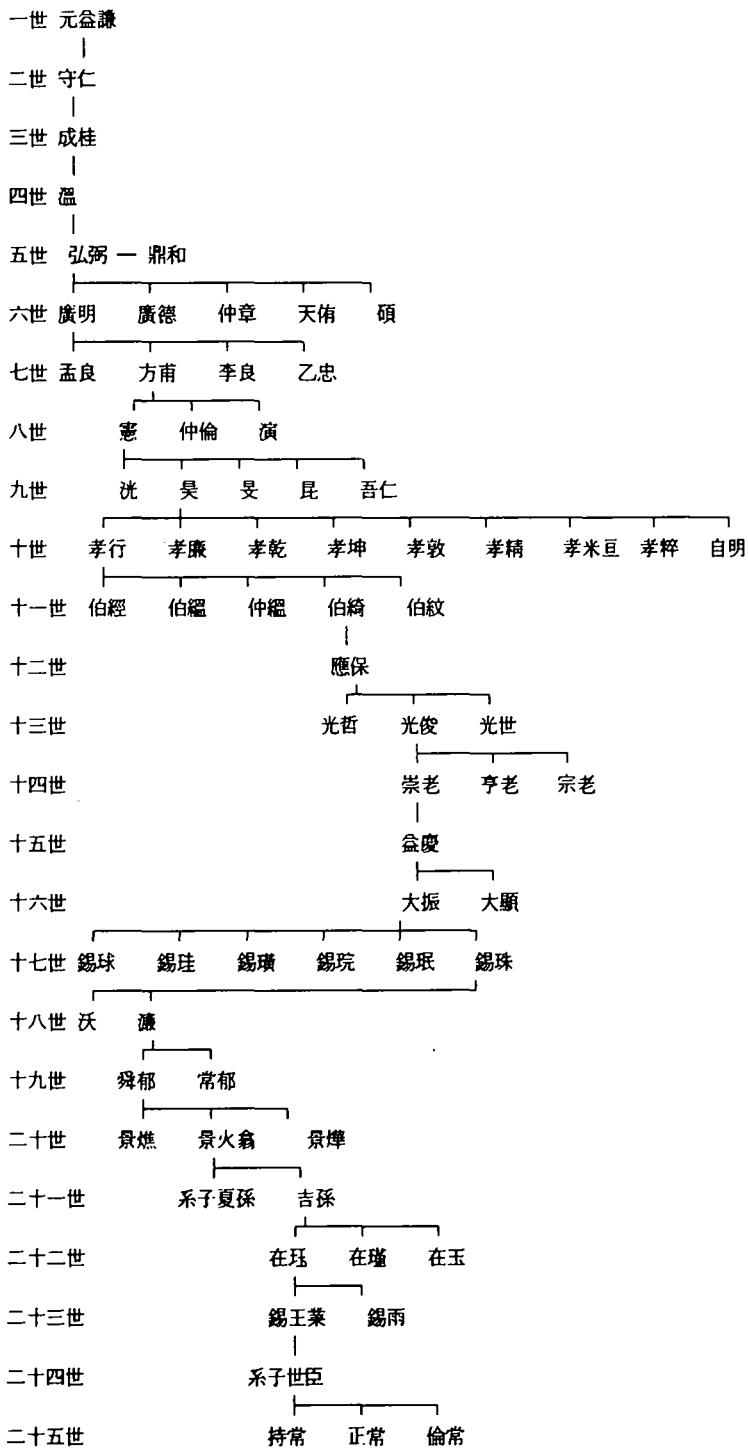
元持常의 父는 元世臣으로 初名은 世永, 字는 孝伯, 號는 鳳南인데 高宗丁卯(1867年) 七月 十七日生으로 錦漢 李根元의 門人이었다. 母는 興陽吳氏로 甲子(1864年) 十一月 二十三日生이고 膝下에 3男2女를 두었는데, 첫째가 持常, 둘째가 正常, 셋째가 倫常이었다.<표1>

元持常의 初名은 壹益常, 字는 德必, 號는 成庵으로 高宗 乙酉(1885年) 六月 一日에 出生하여 1962年 6月(陰曆)에 死亡하였으며(參考 ; 元持常의 死亡時期에 관한 記錄은 없으나, 원용사의 證言에 의해 알 수 있었다.), 毅岩 柳麟錫 先生의 門人이다.

婦人이 세 분 있었는데, 첫째 婦人은 江陵崔氏로

www.kci.go.kr

표 1. 元持常의 家系圖



www.kci.go.kr

辛巳(1881年) 十二月 二十九日에 出生하여 庚子(1900年) 九月 二十六日에 死亡하였고 無子였다. 둘째 婦人은 竹山朴氏로 乙酉(1885年) 五月 二日에 出生하여 甲辰(1904年) 六月 二十二日에 死亡하였는데 역시 無子였다. 셋째 婦人은 丹陽張氏로 辛卯(1891年) 六月 十六日에 出生하였고, 膝下에 2男2女(원용애 - 女, 원용사 - 女, 원용대 - 男, 원용회 - 男)를 두었다.(參考 ; 原州元氏 侍中公系 族譜에는 元持常의 後孫으로 長男인 원용대만 記錄되어 있으며, 원용사의 證言에 의해 家族關係를 알 수 있었다.)

元正常은 字를 德中이라 하였고 庚寅(1890年) 十二月 二十六日 出生하여 辛卯(1951年) 一月 十日 死亡하였다.

元倫常은 字를 德明이라 하였고 辛丑(1901年) 正月 十二日에 出生하였다.

Ⅳ. 元持常의 生涯 및 逸話

1. 元持常의 出生

元持常의 父인 元世臣은 華西 李恒老(1792-1868)의 제자인 錦漢 李根元의 門人으로서 충북 봉양면 일대에서 漢學者로 유명하였다고 한다. 李根元은 1899年 華西文集을 刊行한 人物로서 이 책의 부록에는 金平默, 柳重教, 柳麟錫 等 華西學派의 脈을 잇는 性理學者들의 글이 실려 있다.[5] 또한 元世臣은 性格이 엄하면서 앞산에 소나무 밭을 가꾸고 그곳에서 지역 유생들과 함께 講讀 및 討論을 즐겨 했는데, 그래서 별명이 '가숲밭 호랑이'였다고 한다.

元持常은 3男2女 中의 長男으로, 高宗 乙酉(1885年) 六月 一日에 충북 제천군 봉양면에서 出生하였다. 原州元氏 族譜에는 毅岩 柳麟錫의 門人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아버지 元世臣의 影響으로 華西學派의 學統을 이어 가던 중, 1895年 柳麟錫이 충북 제천으로 移住해 오면서 柳麟錫과 본격적인 인연이 맺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2. 元持常의 師承關係

朝鮮後期의 性理學系는 李珥를 繼承한 畿湖學派와 李黃을 繼承한 嶺南學派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兩大 흐름이 19世紀 경에는 <표2>에서처럼 9個 學派로 分類되었다.[6] 이중 李根元과 柳麟錫은 李恒老의 華西學派에 속한다. 특히, 柳麟錫은 李恒老의 斥邪思想을 전수 받아 이를 乙未獨立運動으로 實踐해간 人物이다.[7] 衛正斥邪 思想은 朝鮮時代에 있어서의 봉건적 질서이념으로서 中國 古代의 堯·舜·禹·湯에서 孔子·程子·朱子로 이어지는 學統인 "正學"을 지켜 내고, 儒教 外의 모든 다른 思想과 學問을 이단적 존재인 "邪學"으로 간주한 思想이다. 곧 "衛正斥邪" 思想은 朱子學的 一尊主義에 "破邪顯正"이란 理念을 갖고 발생한 思想的 무기라 하겠다.[8] 따라서 "衛正斥邪"論은 오랜 時期에 걸쳐 전통적인 유교주의 사상과 尊華攘夷論的인 名分論을 지닌 우리 民族을 民族自存의 愛國思想으로 응결시켜 주는 활력소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9]

표 2. 性理學의 系列 分類

系列	學派	中心人物	活動地域
畿湖	華西學派	華西 李恒老(1792-1868)	경기 강원 충북 지역
	毅堂學派	毅堂 朴世和(1834-1910)	충북 지역
	淵齋學派	淵齋 宋秉璿(1836-1905)	충남 지역
	艮齋學派	艮齋 田愚(1841-1922)	전북 지역
	蘆沙學派	蘆沙 奇正鎭(1798-1879)	전남 지역
嶺南	寒洲學派	寒洲 李震相(1818-1885)	경남 서부 지역
	定齋學派	定齋 柳致明(1777-1861)	경북 동북 지역
	西未軒學派	西未軒 張福樞(1815-1900)	경북 동남 지역
	性齋學派	性齋 許傳(1796-1886)	경남 경북 동남 지역

이러한 衛正斥邪 思想은 李根元, 李恒老를 통하여 元世臣, 元持常에게도 전수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醫學的인 분야에 있어서 元持常이 어떠한 경로로 四象醫學을 접하게 되었으며, 또한 東武 李濟馬와 交流가 있었는지 與否는 確認할 수 없었다.

3. 乙未 義兵 鬪爭과 元持常

朝鮮末期 反日 義兵 鬪爭은 1894年의 甲午改革과 1895年에 일어난 일련의 事件 곧 乙未事變과 斷髮令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제천지역의 義兵鬪爭은 1895年 5月 15日에 華西 李恒老의 門人 5-6백명이 柳麟錫을 中心으로 元持常의 고향인 충북제천에 모여 儒生大會인 鄕飮禮를 거행하는 중에 柳麟錫이 擧義討倭를 目的으로 하는 義兵蜂起를 제의하면서

www.kci.go.kr

시작되었다.[10]

1895年은 元世臣이 28歲, 元持常이 10歲되던 해이며, 제천지역에서는 이때부터 본격적인 義兵抗爭이 시작되었다. 따라서, 元持常 역시 柳麟錫의 뜻을 따라 義兵抗爭을 같이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東醫四象新編』 出版前의 行蹟

25歲되던 1910年 경 元持常 一家는 고향인 충북 제천에서 경기도 여주지역으로 移住해 온다. 1910年을 前後한 時期는 日帝의 탄압으로 인해 제천지역의 義兵活動이 극도로 쇠약해진 때로, 義兵의 中心人物인 柳麟錫이 1908年 블라디보스톡으로 亡命했으며, 1911年에는 柳麟錫의 가족, 친척, 사우 등 45가구가 중국으로 亡命하였다.[11] 시대적인 배경을 볼 때 元持常 一家 역시 이러한 상황 때문에 고향인 제천에서 경기도 여주 지역으로 移住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元持常이 1910年 경기도 여주 지역으로 移住해 온 후 解放이 될 때까지 本人의 過去에 대해 食率들에게조차 일체의 言及이 없었다는 證言에서도 確認할 수 있다.

경기도 여주군 이포로 移住해 온 직후 元持常은 婦人 丹陽張氏와 함께 이포에서 비단가게를 하였는데, 이때 가게에 강도가 들어 많은 財産을 도둑맞고 죽을 고비를 넘긴 후 경기도 여주군 외사리로 移住하게 된다.

이 時期以後 京城에서 文友社라는 出版社를 열어 여러 書籍을 出刊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時期가 정확하지는 않다.

30歲되던 1915年 柳麟錫이 74歲로 餘生을 마치자 이때 以後부터 첫째 원용애를 시작으로 膝下에 2男2女을 出産하였다.

43歲되던 1927年에 先祖인 觀瀾 元昊를 追慕하기 위해 觀瀾遺稿를 增補重刊 發行하였는데, 父 元世臣이 跋文을 적었다.[4] 이때 元世臣의 나이는 60歲였는데, 이로써 父 元世臣이 元持常과 함께 이 時期까지 活發한 學問 活動을 했음을 알 수 있다.

5. 『東醫四象新編』의 出版과 그 以後 行蹟

元持常이 어디에서 四象醫學을 배워 『東醫四象新編』을 編纂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었다.

『東醫四象新編』은 45歲되는 1929年에 出版하였는데 1928年 10月 21日에 張鳳永이 序文을 쓰고, 11月 12日에 南大熙가 跋文을 썼으며, 12月 30日에 印刷를 하여, 1929年 1月 18日에 發行하였다.[1]

『東醫四象新編』이 出版된 文友社는 元持常이 직접 운영한 곳이었으며, 여기에서 四象新編 및 原州元氏 侍中公系의 族譜, 기타 여러 書籍을 出版하였다고 한다. 또한 변형덕(元持常의 동생인 元正常의 외손자로서 元持常에게는 외종손이 된다. 元持常이 경기도 여주군 내사리에 정착하여 韓藥房을 運營했던 時期에 元持常의 옆집에서 幼年時節을 보냈다.)의 證言에 의하면 『四象新編』에 기록되어 있는 文友社의 京城 住所(京城府諫洞九七 - 五番地)는 元持常의 절친한 友人이었던 변학연의 住所와 일치한다고 한다. 하지만 변학연의 後孫도 元持常에 대해 기억하는 바가 없었다.

그 후 文友社에 日本人들의 농간으로 추측되는 원인 모를 火災가 發生하여 모든 것이 타버리자 다시 여주군 내사리로 歸鄕하여 隱居하게 된다. 화재가 있은 얼마 후 첫째인 원용애가 元持常과 함께 京城에 갔었는데, 元持常이 원용애에게 불탄 出版社 자리를 보여주며, 울분하였다고 한다.

이때 以後부터 解放되는 해인 1945年까지는 내사리에 은거하면서 杜門不出하였다.

6. 患者治療를 始作한 以後의 行蹟

解放後인 61歲 경부터 여주군 내사리 所在의 本家 사랑채에서 書堂을 열어 漢學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실제적으로 韓藥房을 運營하며, 본격적인 四象體質治療를 始作한 것은 6·25 戰爭 以後부터의 若 10年間 정도였다.

사랑방을 改造하여 診療室로 이용하였는데 人蔘 세 뿌리를 구하러 읍내까지 심부름 보낼 정도로 한 약방의 규모가 작았다고 한다.

元持常 이외에는 韓藥房 근처에 가지도 못하게 하여, 診療하는 모습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나, 생전에 體質 얘기를 많이 했었고 體質鑑別에 있어 특별한 方法은 없이 脈과 體形으로 鑑別하였다고 한다.

또한, "太陽人은 사자와 같은데, 나는 그와 같은 性格을 가지고 있다" "어깨가 넓다"라고 하면서, 元

www.kci.go.kr

持常 자신이 太陽人임을 밝혔다고 한다. <그림1>은 元持常의 生存時 모습이다. 撮影時期는 解放後 경기도 여주군 내사리 本家에서 韓藥房을 運營할 때라고 추측되지만(원용사 證言) 正確한 時期는 未詳이다. 또한 사진의 뒷배경은 韓藥房을 運營했던 사랑채이다.

元持常이 餘生을 마친 時期는 78歲되던 1962年 6월(陰曆)이었으며, 경기도 여주군 내사리의 本家 뒷산에 안장되었다.

그림 1. 元持常의 사진

7. 元持常의 治驗例

患者 治療 例에 關聯하여 몇 가지 전해지는 얘기는 아래와 같다.

1) 肋膜炎에는 野生 金銀花를 직접 따오게 해서 處方을 調劑해 주었다.

2) 발목 염좌에는 刺鍼 後 生地黃을 붙이고 있게 하였다.

3) 韓藥은 보통 3貼정도 지어 주고 하루 3번, 總 5回 服用한 후 다시 來院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4) 감기에 걸리면 體質에 관계없이 일단 오가탕을 복용하도록 地域住民들에게 弘報하였는데, 오가탕의 구성은 忍冬藤, 蘇葉(기침 없으면 去), 山茱萸, 石榴, 木花(솜을 제거한 후 이슬 맞지 않고 말린 것), 콩깍지(이슬 맞지 않고 말린 것) 였다.

5) 元持常이 蘇葉 等 韓藥材를 마을 근처에 재배하였고, 그때 뿌려진 씨앗 때문인지 지금도 마을 어귀에서 自生 蘇葉이 간혹 발견되고 있다.

以上의 몇 안 되는 治療例에 의하면 元持常이 四象體質 治療를 主로 하면서도 後世方的인 視覺에 의거한 治療도 병행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8. 其他 逸話

其他 元持常에 대해 전해지는 逸話는 다음과 같다.

1) 一平生 풀 한 포기 만져 본 적이 없이 學問에만 專念한 傳統 性理學者로서, 生存當時 집안 칸칸마다 稀貴한 古書로 가득 차 있었으며, 여름이면 地域의 儒生들이 돌아가면서 來往하여 學生들에게 漢學 講義를 하였다.

2) 항상 옆구리에 書籍을 끼고 다녔으며 저녁이면 막걸리 한잔을 잿불에 덥혀 마시고, 밤새 漢詩를 읊조리다가 잠시 就寢한 후 새벽에 다시 일어나 책을 찾았을 정도로 學問에 대한 熱情이 높았다고 한다.

3) "京城의 보성전문에서 강의한 적이 있다"라고 하였다는데, 確認되지는 않았다.

4) 목소리가 우렁차고 좋았으며, "이 나라가 망하지 않았으면, 宮闕에서 講을 크게 하였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朝鮮의 滅亡과 日帝의 抑壓을 통탄해 하였다고 한다.

Ⅳ. 總 括

지금까지 韓醫學界에서는 活用하고 있는 書籍의 書誌學的 考察이나 文獻 硏究가 先行되지 않고 記錄된 內容만 應用되는 경우가 많았다. 『東醫四象新編』 역시 그러한 경우의 一例인데, 著者가 누구이며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發行된 書籍인지에 대한 先

www.kci.go.kr

표 3. 成庵 元持常의 年表

나이	年度	日常	東武 李濟馬의 年表12)
0歲	1885年	충북 제천군 봉양면에서 출생 字 德必, 號 成庵	
1歲	1886年		武科에 登龍 鎭海縣監 兼 兵馬節度使(1年)
5歲	1890年		格致藁 儒略 完成
8歲	1893年		格致藁 反誠篇 完成 東醫壽世保元 始作
9歲	1894年	甲午改革	漢南山中 畢書, 東醫壽世保元 完成
10歲	1895年	柳麟錫(당시 54歲)이 춘천 가정리에서 忠北 堤川 長潭 九鶴山으로 이사옴.	故鄕 下鄕 濟衆新編 附遺藁抄
	1895年 6月24日	柳麟錫(당시 54歲)이 鄕飮禮를 거행하는중에 義兵蜂起를 제의	
	1895年 8月20日	乙未事變	
	1895年11月15日	斷髮令	
11歲	1896年 1月2日 (陰11.28)	柳麟錫(당시 55歲)의 제자인 이필희, 서상렬 등이 원주 지정면 안창리에서 義兵蜂起	崔汶煥의 亂 平定 正三品 通政大夫 官喩委員
	1896年 2月11日 (陰12.28)	柳麟錫선생이 이끄는 湖左義兵陳이 제천으로 이동해 옴	
12歲	1897年		正三品 通政大夫 高原郡守 濟衆新編 五福論 勸壽論 知行論
13歲	1898年		모든 官職에서 물러남
14歲	1899年		亡陰證에 荊防地黃湯 投與 (己亥11/23-庚子3月) 東醫壽世保元改抄(性命論-太陰人篇) 卒(1900年)
15歲	1900年	첫째 婦人인 江陵崔氏 사망(당시 나이 19歲)	
18歲	1903年	柳麟錫(당시 62歲)이 중국망명에서 제천으로 다시 돌아옴.	
19歲	1904年	둘째 婦人인 竹山朴氏 사망(당시 나이 19歲)	
	????年	셋째 婦人인 丹陽張氏와 결혼	
23歲	1908年	柳麟錫(당시 67歲) 블라디보스토크로 망명	
25歲 前後	1910年 前後	충북제천에서 경기도 여주군 이포로 이주 이포에서 비단가게를 하던중 강도에게 가게를 털린후 "경기도 여주군 외사리"로 이주	
26歲	1911年	柳麟錫(당시 70歲)의 가족,친척,사우 45가구 중국으로 망명	
30歲	1915年	柳麟錫(당시 74歲) 사망.	
31歲	1916年	1째 원용애(여) 출생(여주군 외사리)	
33歲	1918年	2째 원용사(여) 출생(여주군 내사리)	
36歲	1921年	3째 원용대(남) 출생(여주군 내사리)	
40歲	1924年	4째 원용휘(남) 출생(여주군 내사리)	
43歲	1927年	觀瀾遺稿 增補重刊 發行	
44歲	1928年10月21日	張鳳永이 東醫四象新編 序文을 씀	
	1928年10月12日	南大熙가 東醫四象新編 跋文을 씀	
	1928年12月30日	東醫四象新編 印刷	
45歲	1929年 1月18日	東醫四象新編 發行	
58~ 59歲	1943~44年	3째 원용대 만주에서 활동중 낙마사고로 사망 ==>無子 4째 원용휘 결혼후 바로 사망 ==>無子	
61歲 前後	解放後	사랑채에서 書堂을 열어 漢文을 가르쳤음.	
66歲 以後	1950年 6.25戰爭 以後	사랑채에서 韓藥房을 열어 體質治療를 시작하였음.(若10年間)	
78歲	1962年6月(陰曆)	元持常 卒(여주군 내사리에 안장)	

www.kci.go.kr

行 硏究도 없이 收錄된 處方에 대해서만 比較 分析되어 臨床家에서 活用되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國立中央圖書館의 記錄에도 『東醫四象新編』의 著者가 元德心으로 되어 있다.(現在는 本 硏究의 著者가 記錄 變更을 申請한 狀態이다.)

關聯資料 및 生存人物들의 證言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 이번 硏究에서 밝혀진 바는 다음과 같으며, <표3>에서 年表를 정리하였다.

元持常은 原州元氏 侍中公系 元益謙의 25世孫이며, 生六臣의 한 사람인 元昊의 16世 後孫이다. 父는 元世臣인데 高宗丁卯(1867年) 七月 十七日生으로 華西學派의 一人인 錦漢 李根元의 門人이었다. 母는 興陽吳氏로 甲子(1864年) 十一月 二十三日生이고 膝下에 3男2女를 두었는데, 첫째가 持常, 둘째가 正常, 셋째가 倫常이다.

元持常의 初名은 壹益常, 字는 德必, 號는 成庵으로 高宗 乙酉(1885年) 六月 一日에 충북 제천군 봉양면에서 出生하여, 1910年경 경기도 여주 지역으로 移住하였으며, 그 후 활발한 學問活動을 하다가 1962年 6月(陰曆) 경기도 여주군 흥천면 내사리에서 78歲의 나이로 餘生을 마쳤다.

元持常에게는 3명의 婦人이 있었는데, 첫째와 둘째 婦人은 일찍 死亡하여 자식이 없었고, 셋째 婦人인 丹陽張氏와의 사이에 2男 2女를 두었다.[2] 이중 둘째인 원용사 할머니가 生存해 있으며, 이 분을 통하여 『東醫四象新編』 原本을 볼 수 있었으며, 元持常이 自身을 太陽人으로 鑑別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그림1> 元持常의 스승은 毅岩 柳麟錫 先生이었다. 柳麟錫은 李根元과 함께 華西學派의 傳統學統을 이어간 性理學者였으며, 久韓末 獨立運動을 이끈 中心 人士 中의 一人으로서[3] 국가보훈처에서 1月의 獨立運動가로 선정한 人物이다. 元持常도 젊은 시절 柳麟錫의 影響으로 衛正斥邪 思想에 의거한 제천지역 乙未義兵抗爭에 참여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關聯資料가 남아있지는 않다. 하지만, 柳麟錫의 義兵抗爭 本據地가 元持常의 고향인 충북 제천이었으며, 제천지역 義兵活動이 극도로 쇠약해져 柳麟錫이 블라디보스톡으로 亡命할 때(1908年)11)와 비슷한 時期에 元持常 一家가 충북 제천에서 경기도 여주 지역으로 移住(1910年 경)한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妥當性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父 元世臣은 末年까지 元持常과 함께 學問에 深醉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는 1927年에 出版된 觀瀾遺稿라는 書籍의 跋文을 元世臣이 記錄하고, 編輯 및 發行을 元持常이 한 것에서 확인 할 수 있다.[4] 이때 元世臣은 60歲, 元持常은 43歲였다.

『東醫四象新編』은 1929年에 文友社에서 出版되었다.[1] 文友社는 元持常이 직접 운영하던 出版社로서 이곳에서 『東醫四象新編』 外에 많은 書籍들을 發刊했다고 하는데, 元持常이 發行한 書籍들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硏究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元持常이 누구에게서 四象醫學을 전수받아 『東醫四象新編』을 發行했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韓藥房을 運營하면서 患者를 직접 治療하기 시작한 것은 6·25전쟁 以後부터의 若 10年間 이며 주위 사람들에게 體質病證에 關聯된 助言을 많이 하였을 뿐만 아니라 體質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民間療法에 대해서도 전파를 하였다고 한다.

患者治療에 관한 證言에 의하면 元持常의 體質鑑別 方式은 脈狀, 體形 뿐만 아니 藥物 投與後 反應에 의거한 方法도 應用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以上이 元持常에 관하여 硏究된 것들이다.

V. 結 論

『東醫四象新編』의 著者인 元持常에 대하여 硏究한 結果는 다음과 같다.

1. 元持常의 初名은 壹益常, 字는 德必, 號는 成庵으로 高宗 乙酉(1885年) 六月 一日에 충북 제천군 봉양면에서 出生하여, 1910年쯤 경기도 여주 지역으로 移住한 후, 1962年 6月(陰曆) 경기도 여주군 흥천면 내사리에서 78歲의 나이로 餘生을 마쳤다.
2. 元持常의 哲學思想은 金平默, 柳重教, 李根元, 柳麟錫 等으로 이어지는 華西學派의 思想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3. 『東醫四象新編』이 出版된 時期는 元持常의 나이 45歲때인 1929年으로 李濟馬 逝去후 29年만이다. 그러나, 元持常이 어떠한 경로로 四象醫學을 접하게 되었으며, 또한 東武 李濟馬와 交流가 있었는지 與否는 確認할 수 없었다.

www.kci.go.kr

4. 元持常은 文友社라는 出版社의 運營과 四象醫學的 哲學觀의 實踐이라는 우회적인 方法을 통하여 韓日合邦 以後의 암울한 時代狀況을 克服하고, 華西學派의 衛正斥邪 思想을 전파하려 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 部分이 좀더 硏究된다면 傳統 漢學을 고집한 元持常이 『東醫四象新編』을 編纂하면서 어떠한 이유로 原論部分인 性命論, 四端論 等에 關聯된 內容은 削除시키고 病證論 部分만 記錄했는지 說明 할 수 있을 것 같다.
5. 元持常의 醫藥經驗은 45歲 以前부터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본격적으로 韓藥房을 開設하고 患者를 治療한 것은 66歲 以後부터의 若 10年間이다.
6. 患者 診療時 보통 3貼 정도를 먼저 주어 5回 정도로 나누어 分服시킨 후 다시 來院하게 하였던 것으로 미루어 보면, 元持常의 體質鑑別 方式은 脈狀, 體形 뿐만 아니라 四象體質 藥物 投與後의 反應에 의거한 方法도 應用하였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Ⅵ. 後 記

本 資料를 整理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에게 感謝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억이 아득하여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제야 아버지의 업적이 세상에 드러나려나 보다"고 하시며 고이 간직하셨던 『東醫四象新編』 原本 및 成庵 元持常의 사진을 私心없이 전해 주신 원용사 할머니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 家門의 歷史를 옮기면서 本意 아니게 後孫들에게 累가 되지 않았을까 조심스러우며, 追後에라도 元持常이 살았던 當時의 時代狀況을 바탕으로 한 元持常의 哲學思想 硏究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參 考 文 獻

1. 元持常. 東醫四象新編. 京城 : 文友社, 昭和四年(1929年).
2. 原州元氏侍中公系族譜編纂委員會. 原州元氏族譜增補六刊. 大田 : 回想社, 1985 ; 卷之二 1-6, 卷之八 194.
3. 民衆書館編輯局. 漢韓大字典. 서울 : 民衆書林, 1992 ; 829.
4. 元昊. 觀瀾遺稿 附實記. 京城 : 觀瀾先生 遺稿發行所, 昭和二年(1927年).
5. 李恒老. 華西集 : 李根元 柳重岳 編. 1899.
6. 琴章泰. 韓末 日帝下 韓國 性理學派의 思想系譜와 文獻에 관한 연구. 韓國 哲學思 想의 諸問題 1985 ; 3 : 213-215.
7. 李鐘尙. 毅岩 柳麟錫의 歷史認識에 關한 硏究. 成均款大學校 大學阮 碩士學位 論文. 1997 : 13-15.
8. 姜在彦. 韓國의 近代思想. 서울 : 한길사, 1985 : 44-47.
9. 洪淳昶. 韓國의 民族思想. 서울 : 探求堂, 1975 : 119.
10. 張工愚. 毅岩 柳麟錫의 抗日運動硏究. 檀國大學校 敎育大學阮 碩士學位論文. 1990 : 12-15.
11. 柳漢喆. 柳麟錫 義兵 硏究. 國民大學校 大學阮 文學博士 學位論文. 1995 : 288-295.
12. 朴性植. 東武 李濟馬의 家系와 生涯에 대한 硏究. 사상의학회지. 1996 ; 8(1) : 11-32.
13. 白承敦. 柳麟錫의 思想과 詩世界. 高麗大學敎 敎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8 : 102.

www.kci.go.kr